

광주 아파트 청약 경쟁률 꺾춤

최근 1년 청약률 3년전보다 382%↑ ...수완·봉선·진월동 치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뒀다방'이 등장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덩달아 청약 경쟁률도 급격히 치솟고 있다.

10일 생활정보지 사망방신문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광주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29개 단지의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하남2지구 아파트로 부영3차와 수완 대방노블랜드 3개 단지, 수완 호반베르디움, 수완 이지더원, GS첨단자이2차 등 7개 단지다. 이들 아파트 청약률은 평균 3.70대 1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청약경쟁률 0.78대 1보다 382% 증가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 2007년 1.52대 1, 2008년 0.54대 1, 2009년 1.04대 1 등이었다.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 달 북구 신용동에 분양한 GS건설의 첨단자이2차였다. 468세대 모집에 6836세대가 청약해 1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2008년 8월 분양한 남구 진월동 2단지 한국아델리움이 12.0대 1, 지난해 5월 분양한 수완 대방노블랜드 15-1블록 10.86대 1, 같은 해 2월 분양한 봉선동 더힐2단지가 8.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65~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평균 1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48개 평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0개로 전체의 41.7%였고 86~135㎡는 14개(29.2%), 136~165㎡ 8개(16.7%), 166~198㎡ 4개(8.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수완지구와 남구 봉선동·진월동 등의 경쟁률이 치열했다.

수완지구는 모두 8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순위 내 마감했고 봉선동은 3개 단지 모두, 진월동은 3개 단지 중 2개 등이 청약기간 내 마감됐다. 반면 하남2지구와 지석동, 양산동 등은 청약 마감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마감순위별로는 전 평형에서 3순위 마감돼 실수요 외에 투자자 등 가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방신문 부동산팀 관계자는 "광주는 인근지역 인구 유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최근 2~3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흥 주거지역의 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경매아파트 낙찰률 90% 전국 톱

낙찰률 107.4% 역대 최고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경제 전문 저지옥선에 따르면 3월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역대 최저인 59건으로 전월(116건)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 중 53

건이 낙찰돼 89.9%의 낙찰률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낙찰가율도 10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0명에 달했다.

저지옥선은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값싸게 장만할 수 있는 경매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를 부문에서는 광

산구 월계동 첨단지리안아파트 60㎡형에 28명이 몰려 최고를 기록했고, 낙찰가율 부문에서는 남구 진월동 풍림아파트 141.2㎡형이 감정가의 148%에 낙찰됐다.

3월 전남지역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79건으로 이 가운데 41건이 낙찰돼 51.9%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99.5%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토지 물건수는 3월에도 1076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79.6%로 지난달보다 7%p 떨어졌고 평균 응찰자 수는 2.2명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이트 맥주 +진로 합병 '주류공룡' 탄생

국내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합병, 최대 주류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하이트맥주와 ㈜진로를 통합한 하이트진로(주)를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하이트진로(주)는 맥주와 소주, 기타제주 등 거의 모든 주류 사업을 총괄하는 국내 최대의 주류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하이트진로그룹 측은 "종합 주류그룹으로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회사는 진로가 하이트맥주를 합병하는 형식으로, 하이트맥주 보통주 주주는 주식 1주당 진로 보통주 3.0303911주를,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와 같은 비율로 받게 된다.

오는 7월28일 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8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고, 9월1일자로 정식 합병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통합 영업과 공동 마케팅을 확대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트 맥주와 진로는 감세를 보이는 지역이 잇달아 통합 영업망을 통해 이를 서로 보완하면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하이트맥주가 55.8%, 진로가 48.7%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하이트맥주가 1조 223억원, 진로가 7055억원으로, 합병하면 매출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법인설립 16돌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사진)가 지난 1995년 4월 10일 광주 현지법인으로 출발 한 후 지역의 사람과 신뢰속에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성장해 올 해로 법인설립 16주년을 맞았다.

지난 16년간 광주신세계는 지역과 동반 성장을 최고 경영 목표로 사회봉사사업, 장학사업, 지역상품관료화대, 문화·체육사업, 친환경 사업 등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광주현지법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매년 3억여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해 각종 사회단체 및 시설 등에 꾸준한 지원활동과 15년 동안 매년 1억씩 총 15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3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 매해 1억원의 후원금 기탁과 광주신세계 미술제와



어린이 그림잔치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백화점내 노후 설비 교체, 종이없는 사무실 만들기, 녹색 소비 운동 등 전 임직원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 부터는 수십년간 백화점 광고의 큰 축을 담당해오던 전단 광고 등을 없애 최초로 전면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의사 결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조창현 대표이사는 "최고의 지역 쇼핑문화 공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수익구조 안전한 중형주 주목

KOSPI가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난 주말의 경우 ECB의 금리 인상과 일본의 추가 여진 소식에도 상승 흐름을 보이던 KOSPI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급격하게 확대되며 급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형 약재들을 한꺼번에 반영한 후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식형 펀드 환매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물이 출회된 것이 주가 탄력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인 17거래일 연속 주식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며, 쏟아지는 차익 매물로부터 주가를 방어해내는 활약을 해왔다. 단기 과열 부담이 가격 조정을 통해 반영되기 보다는 장중 등락과 단기적인 기간 조정으로 해소되면서 꾸준한 레벨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의 약재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중동 발발 불안실상과 일본 대지진 이슈는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오랜 기간 글로벌 증시의 잠재 불안요인이 되어왔던 남유럽 재정위기는 포르투갈 정부가 구제금융 요청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정책기조가 올해 내내 본격적인 긴축 쪽으로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럽은 완만한 긴축 내지는 중립으로, 미국은 현재 수준의 기조 유지 내지는 중립 정도로, 선제적 정상화에 나섰던 중국·한국 등의 신흥국은 긴축 강도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일본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역시 실적발표 시즌을 앞두고 둔 투자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종별별·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종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자동차·화학·IT·보험이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한편,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전개되어 왔고, 특히 일본 대지진 이후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펀드멘털 개선과 견조한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대외 불안이 진정될 경우 점차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장세가 2/4분기 중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험적으로 진정한 강세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이 대형주보다 강한 특징을 보여 왔고, 최근 주도 업종내 가격 부담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한 대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은 중소형주의 투자 매력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강세장에서 빛날 중소형주를 담고 가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중형주들에 주목할 것을 추천한다. 중형주 중에는 LG패션, 티씨케이, 테크노세미캠, 신성홀딩스, S&T대우, 카프루, SKC 등이 유망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기아차와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은 지난 9일 오후 광주공장 연구동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지역민, 사회복지시설 용진음악원·함평시온원·쌍촌종합사회복지관 원생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봄날의 정취를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은 지난 9일 오후 광주공장 연구동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지역민, 사회복지시설 용진음악원·함평시온원·쌍촌종합사회복지관 원생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봄날의 정취를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물가상승 압력...먹거리 전반으로 확산

가공식품 물가가 불안하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소시지·햄 등 육가공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국제원단 가격 상승으로 비스킷과 빙과류 등의 상승폭도 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의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두부 18.1%, 빵 7.1%, 소시지 9.7%, 햄 11.1%, 비스킷 6.1%, 사탕 11.4%, 빙과 25.3%, 고춧가루 24.4%, 설탕 17.1%, 고추장 22.5%, 카레 15.1%, 물엿 10.8%, 즉석식품 10.8%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공식품과 주요 외식 메뉴 등 '친숙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들과 시장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일부 식품업체들은 실제로 4월 들어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자극해 도미노식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당업체가 지난해 12월과 지난해에 연이어 설탕값을 9~10% 올린 데 이어 동아원이 최근 밀가루 가격을 8.6% 인상했고, 다른 제분업체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태세다. /연합뉴스

대한조선(주) 기술교육원

제13기 기술연수생 모집

모집기간: 2011. 5. 15일 까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응시자격	교육기간
조선 (특수응접, 특수도장 선체조립, 배관)	00명	- 군필자 및 면제자로서 남·여 -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신체 건강한 자 - 단체생활 및 기능훈련에 장애가 없는 자	2011. 5. 23 ~ 8. 26 (3개월)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접수 기한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 및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11. 5. 15일 까지	2011. 5. 16 (월)	2011. 5. 18 (수)	2011. 5. 20 (금)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지 원 방 법	제 출 서 류
1) 온라인 접수 대한조선(주) 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daehanship.com/edu)	1) 지원신청서(온라인 지원) 1부
2) 우편접수 : (우. 536-882)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 563번지 대한조선(주) 기술교육원 담당자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방문 접수 및 문의사항 대한조선(주) 기술교육원 (TEL. 061-531-0404~0408)	3) 자격증 사본 1부(해당시 제출)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면접시 제출하며,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특 전

- 1)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 2) 훈련비용 및 교재, 훈련용 피복, 숙식 무료제공
- 3) 선급협회 자격취득
- 4) 협력업체 취업알선

※연수기간중 성적우수자 「회사출자 협력업체」 우선 취업자격부여 (00명)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